

미 증시, 도이체뱅크 우려 불구 주요 인사들 발언으로 상승 전환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도이체뱅크 불안 불구 라가르드, 블라드 등의 발언으로 상승

•미 증시는 도이체뱅크(-3.11%)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자 안정을 찾던 은행 불안이 재 부각되며 하락 출발. 그러나 CS(-1.23%)와 달리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소식에 낙폭 축소. 라가르드 ECB 총재가 EU 정상회담에서 은행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블라드, 보스틱 총재 등의 발언도 우호적. 물론, 여전히 불안 심리는 남아 있어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뚜렷한 모습을 보임(다우 +0.41%, 나스닥 +0.31%, S&P500 +0.56%, 러셀2000 +0.85%)

특징 종목: 반도체 부진 Vs. 지역은행, 유틸리티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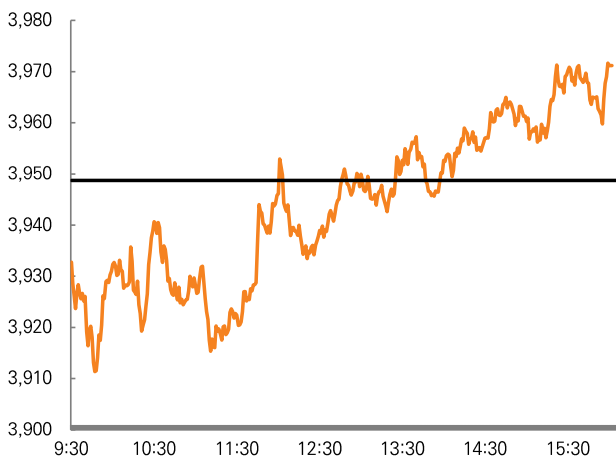
•엔비디아(-1.51%)은 잭슨 황 CEO가 AI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하락. 특히 AMD(-2.32%)가 과매수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AMAT(-2.65%), NXP 세미컨덕터(-3.02%) 등도 약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7% 하락. 팩 웨스트 은행(+3.19%) 등 소형 은행들은 은행 리스크 완화 기대 속 상승. 아메리칸 타워(+4.17%)등 리츠 금융 회사들과 듀크에너지(+3.08%) 등 유틸리티 업종은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한국 증시 전망: 종목, 업종 차별화 장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29%, MSCI 신흥 지수 ETF는 0.2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3.0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5% 상승. KOSPI는 보합권 출발 예상.

•미 증시는 도이체뱅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가르드, 블라드 총재 등의 발언으로 은행 리스크가 확대되기 보다는 안정을 찾아가며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다만, 무디스를 비롯한 여타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은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도 재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이런 가운데 AI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과매수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67% 하락한 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지수 보다는 종목과 업종 중심으로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14.96	-0.39	상해종합	3,265.65	-0.64
KOSDAQ	824.11	+1.47	홍콩항셍	19,915.68	-0.67
DOW	32,237.53	+0.41	베트남	1,046.79	+0.16
NASDAQ	11,823.96	+0.31	유로스톡스 50	4,130.62	-1.82
S&P 500	3,970.99	+0.56	영국	7,405.45	-1.26
캐나다	19,501.48	+0.21	독일	14,957.23	-1.66
일본	27,385.25	-0.13	프랑스	7,015.10	-1.7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①도이체뱅크 ②라가르드, 블라드, 보스틱 발언

도이체뱅크(-3.11%)의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상승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 특히 CS(-1.23%)로 인한 불안이 결국 도이체뱅크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것. 그렇지만, JP 모건을 비롯해 많은 투자은행들은 도이체뱅크는 CS와 달리 보통주자본 비율이 13.4%로 자본 구성이 튼튼하고 유동성 커버리지도 142% 수준을 보이는 등 유동성 관련 지표가 긍정적이며, 수익성 또한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실제 도이체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CS와 달리 그 폭이 제한적임을 감안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

이런 가운데 EU 정상회담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은행 부문은 강력한 자본 및 유동성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주장하며 유럽 은행들의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줌.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은행 리스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언급하고 규제 기관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 더불어 미국은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연준이 더 반응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또한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탄력적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고 언급.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은행 시스템 안정 속 경제가 여전히 견고해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상업 은행 전체 예금은 3월 8일 기준 17.6조 달러에서 3월 15일 기준 17.5조 달러로 감소한 가운데 상위 25개 은행은 10.67조 달러에서 10.74조 달러로 증가. 반면, 소형 은행 예금은 5.58조 달러에서 5.46조 달러로 감소해 여전히 대형 은행으로의 예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연준 등 규제 기관이 예금 보호에 개입을 단행한 3월 16일 이후에는 그 속도가 최근 둔화되고 있어 지역 은행 리스크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지역은행, 리츠금융 강세 Vs. 반도체 부진

엔비디아(-1.51%)은 잭슨 황 CEO가 AI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하락. 특히 AMD(-2.32%)가 과매수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하자 엔비디아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됨. AMAT(-2.65%), 램리서치(-4.11%) 등 반도체 장비업종은 물론, NXP 세미컨덕터(-3.02%), 마이크로칩 테크(-3.49%) 등도 약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7% 하락.

메타플랫폼(+0.85%)은 성장성 등을 감안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 가운데 목표주가를 225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 MS(+1.05%)는 블리자드(+5.91%) 인수에 대해 영국 규제당국이 입장을 완화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블리자드와 상승. 애플(+0.83%)은 자본 이동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기 침체시기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팀 쿡 CEO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내 사업 확대 기대도 긍정적

퍼스트 리퍼블릭(-1.36%)은 하락했으나, 팩 웨스트 은행(+3.19%), 웨스턴 얼라이언스(+5.76%), 이스트 웨스트 은행(+2.05%) 등 소형 은행들은 은행 리스크 완화 기대 속 상승. 아메리칸 타워(+4.17%), 크라운 캐슬(+4.61%), 리얼티 인컴(+2.99%) 등 리츠 금융 회사들과 듀크에너지(+3.08%), 엑셀에너지(+3.54%) 등 유틸리티 업종은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월마트(+0.82%), 코스트코(+1.54%), 코카콜라(+1.64%) 등 필수 소비재와 J&J(+1.01%), 일라이릴리(+1.05%) 등 제약 바이오 업종은 경기 둔화 우려 여파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05	대형 가치주 ETF (IVE)	+0.82
클린테크 ETF (CTEC)	-1.91	중형 가치주 ETF (IWS)	+0.99
소매업체 ETF (XLY)	-0.32	소형 가치주 ETF (IWN)	+1.14
온라인소매 ETF (EBIZ)	-1.14	대형 성장주 ETF (VUG)	+0.27
미국 인프라 ETF (PAVE)	+0.26	중형 성장주 ETF (IWP)	-0.02
핀테크 ETF (FINX)	-0.51	소형 성장주 ETF (IWO)	+0.59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5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60
클라우드 ETF (CLOU)	+0.12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40
사이버보안 ETF (BUG)	-0.80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1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57	미국 국채 ETF (IEF)	+0.0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53	하이일드 ETF (JNK)	-0.28
바이오섹터 ETF (IBB)	+1.22	신흥국 채권 ETF (EMBD)	-0.12
로봇&AI ETF (BOTZ)	-0.37	물가연동채 ETF (TIP)	-0.25
반도체 ETF (SMH)	-1.5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유틸리티	333.82	+3.12	-1.20	-0.23
부동산	223.26	+2.58	-1.38	-6.92
필수소비재	761.34	+1.63	+1.43	+0.52
헬스케어	1,484.65	+1.31	+1.49	-0.43
소재	484.05	+0.81	+2.12	-5.55
산업재	820.48	+0.35	+0.67	-3.93
에너지	598.03	+0.29	+2.29	-7.62
커뮤니케이션	188.77	+0.26	+3.40	+9.05
IT	2,552.04	+0.25	+2.04	+7.02
금융	515.97	-0.06	+0.58	-12.85
경기소비재	1,102.47	-0.35	+0.44	-2.4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업종 차별화 장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29%, MSCI 신흥 지수 ETF는 0.2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93.0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5% 상승. KOSPI는 보험권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연준의 긴축 기조 마무리되어가는 기대 속 상승하기도 했으나, 미국 지방 은행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며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다만, 미 증시의 특징처럼 개별 종목 및 업종 차별화를 보인 점이 특징. 이 여파로 KOSPI는 0.39% 하락했으나, KOSDAQ은 중국 판호 승인 기대로 게임주가 급등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으로 1.47% 강세를 보이며 마감. 한편, 전일 급락했던 달러/원 환율은 되돌림이 유입되며 16원이나 상승한 1,294.30원으로 마감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도 KOSPI 지수에 부담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도이체뱅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가르드, 블라드 총재 등의 발언으로 은행 리스크가 확대되기 보다는 안정을 찾아가며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견고하다고 주장한데 이어 블라드 총재, 토마스 바킨 총재, 보스틱 총재 등과 라가르드 ECB 총재 등 이날 발언이 있었던 주요 인사들 또한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을 주장해 도이체 은행 이슈의 확대 가능성을 제어한 점도 우호적

다만, 무디스를 비롯한 여타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은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도 재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지난 FOMC에서 연준은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이는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AI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과매수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67% 하락한 점도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 후 여전히 지수 보다는 종목과 업종 중심으로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업 지수 11개월내 최고

미국 3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7.30이나 예상치인 47.2보다 개선된 49.3으로 발표.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50.6이나 예상치인 50.3을 크게 상회한 53.8로 발표. 결국 온화한 날씨의 영향 등으로 수요 증가가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미국 2월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5.0% 감소보다 개선된 1.0% 감소로 발표됐으나 시장 예상치인 1.5% 증가보다는 부진.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0.4% 증가나 예상치인 0.3% 증가보다 부진한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음

영국 3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9.3보다 둔화된 48.0으로 서비스업지수도 53.5에서 52.8로 위축. 독일 제조업 PMI는 46.3에서 44.4로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지수는 50.9에서 53.9로 개선.

영국 2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9% 증가보다 개선된 1.2% 증가로 발표. 근원 소매판매도 0.9%에서 1.5%로 개선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 속 금리 하락,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도이체뱅크 우려가 높아지자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 더불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초 종료에 대한 기대로 주 초반 상승을 뒤로 하고 차익 매물 출회된 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유가 하락 요인. 한편, 유럽 천연가스는 프랑스 에너지 시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높은 재고와 온화한 날씨 등으로 하락. 미국 천연가스는 재고 감소 등으로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달러화는 도이체뱅크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유로화는 도이체뱅크 사태가 부각되자 남유럽 은행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은행 리스크는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 다만, EU 정상회담에서 금융 지원, 유로존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 등으로 약세폭은 제한.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호주 달러 등 대부분의 신흥국 환율은 약세

국채금리는 도이체뱅크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하락. 다만,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럽 은행들은 건고하다고 관련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을 하고,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규제 기관이 재정 스트레스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낙폭 축소. 더불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탄력적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은행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 점도 금리 하락폭 축소 요인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한 때 2,00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 전환후 낙폭 확대.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니켈의 경우 순매수 포지션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투기적인 매수세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혼조 양상. 곡물은 미국 옥수수 파종 면적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 더 나아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옥수수 상승요인. 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9%, 철근은 0.12%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26	-1.00	+3.48	Dollar Index	103.116	+0.57	-0.57
브렌트유	74.99	-1.21	+2.77	EUR/USD	1.0760	-0.66	+0.84
천연가스	2.22	+2.88	-5.22	USD/JPY	130.73	-0.09	-0.85
금	2,001.70	-0.58	+0.58	GBP/USD	1.2233	-0.44	+0.49
은	23.34	+0.36	+3.90	USD/CHF	0.9198	+0.36	-0.68
알루미늄	2,337.00	+0.47	+2.77	AUD/USD	0.6645	-0.58	-0.78
전기동	8,921.50	-1.21	+3.98	USD/CAD	1.3744	+0.21	+0.09
아연	2,891.50	-0.53	-0.12	USD/RUB	77.2784	+1.61	+0.35
옥수수	643.00	+1.78	+1.38	USD/BRL	5.2466	-0.99	-0.61
밀	688.50	+4.00	-3.10	USD/CNH	6.8669	+0.55	-0.28
대두	1,428.25	+0.62	-3.27	USD/KRW	1,294.30	+1.25	-0.61
커피	179.25	+2.84	+1.50	USD/KRW NDF1M	1,293.01	+0.73	-1.0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376	-5.04	-5.24	스페인	3.188	-5.80	-4.00
한국	3.222	-5.00	-18.30	포르투갈	3.004	-6.30	-3.00
일본	0.316	-0.70	+2.80	그리스	4.087	-6.00	-6.90
독일	2.129	-6.60	+2.10	이탈리아	4.010	-5.60	-4.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